

더 깊은 묵상

용서하는 마음

원스톤 처칠이 사관 생도 시절의 일입니다.

어느 날 그가 훈련소를 벗어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

당시 생도들이 외출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방 앞에 '외출'

이라는 풋말을 붙여 놓고 외출하게 되어 있었는데,

처칠은 잠깐 다녀올 생각으로 그 풋말을 붙이지 않고

시내에 나왔습니다.

근데, 뜻밖에도 엄하기로 유명한 규율 부장을 만났습니다.

처칠은 몹시 당황했습니다.

'외출' 풋말을 붙이지 않은 채 외출을 하면 규율 위반이 되고

규율 위반에 따른 벌칙이 엄했기 때문입니다.

규율 부장보다 먼저 부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 앞에 '외출'

풋말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.

혈떡거리며 방 앞에 당도한 처칠은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.

그곳에는 '외출' 풋말이 양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

규율 부장이 처칠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'외출' 풋말이

없는 것을 보고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.

그 후 처칠은 규율 부장에게 심한 꾸중을 듣게 될 것이라

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, 규율 부장으로부터 호출도,

꾸중도, 책망도 없었습니다.

부대 내에서 규율 부장과 마주쳤을 때도 씩웃는 것으로 지나칠 뿐

외출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.

처칠은 이 사건을 계기로 '정직'을 생각하게 되었고,

그것이 그의 생애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.

그리고 후에는 영국 수상으로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

될 수 있었습니다.

만일 규율 부장이 처칠을 불러 늘 하던대로 심한 꾸중을 하고 벌칙을

주는 것으로 그쳤다면, 그에게 자극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용서의 마음, 관용의 마음이 처칠에게 크나큰 자극과 결단을

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.

출처 - 희망 업그레이드 / 서순석 (2002/10/16)